

국내 치유농장 경영주의 사업동기에 따른 특성 분석*

김기용^{a**} · 김경미^b · 이상미^b

^a(주)케이엠플러스컨설팅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8길 24-14 3F)

^b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00)

Characteristics of Agro-Healing Farms according to Business Motivation

Ki-Yong Kim^{a**} · Gyung-Mee Gim^b · Sang-mi Lee^b

^aKMPlus Consulting, Co. (24-14, Gangnam-daero 18-gil, Seocho-gu, Seoul, Korea)

^bUrban Agriculture Research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 Herbal Science (Wanju, Jeonbuk,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differences by business motivation of agro-healing farms in Korea. A survey was conducted for entrepreneurs in agro-healing farmers with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business motivation of agro-healing farms in Korea can be classified to 1) education-oriented, 2) care-oriented, and 3) sale revenue-oriented motivation. Second, care-oriented farms provide healing services to people in need like the disabled. These farms may be required a long-term program such as residence-required format. And these farms need supports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 personnel or institutions. Third, sale revenue-oriented farms have sources of main income from agricultural products or processed goods made in these farms. Therefore, these farms may be required a business strategy such as product development, marketing rather than agro-healing programs. fourth, the estimation of a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 determines the characteristics of agro-healing entrepreneurs who are most likely to opt for each type motivation of participating for agro-healing farm busines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s on business motivation of agro-healing farms were 'participants type in programs', 'program operating time', 'supporting health and medical service personnel or institutions' and 'program revenue ratio in farm operating revenue'.

Key words: care farm, agro-healing, horticultural therapy, business motivation

1. 서론

최근의 농업 분야는 생산에 초점을 둔 1차 산업이나 가공 및 판매에 초점을 둔 2, 3차 산업에 머무르고 있지 않으며, 관광농업을 넘어 '치유농업(agro-healing)'이라는 트렌드로 전환되고 있다. 이미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비롯한 농업분야 선진국에서는 '치유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의 활용(using farming to provide care)'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치유농장에 대한 관심 및 투자가 증

대되어 왔다(Elings, Haubenhof, Hassink, Rietberg, & Michon, 2011; Hassink, 2007, 2009, 2010; Hassink, & van Dijk, 2006; Sempik, Hine, & Wilcox, 2010; Hine, Peacock, & Pretty, 2008a). 이에 따라 유럽의 경우, 치유농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학교나 지역 사회, 병원 등과 연계된 치유농장 운영을 통해 지역 공동체에 새로운 치유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Driest, Jans, Roest, & Oltmer, 2010; Di Iacovo, & O'Connor, 2009; Hassink, van Dijk, & Klein Bramel, 2011; Hine et al., 2008a).

주요어: 치유농장, 치유농업, 원예치료, 사업동기

* 본 연구는 2016년 농촌진흥청의 '농촌교육농장' 연계형 치유농장 운영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PJ0112662016)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교신저자(김기용) 전화: 070-7727-9445 e-mail: kmplusky@gmail.com

우리나라 농산업을 이끌어갈 주요 트렌드는 FTA, 애그리 비즈니스, 다문화, 신 소비문화, 기후변화와 더불어 건강, 치유농업, 농촌에 대한 재인식 등이 표방되고 있다(김경미 외, 2013a). 즉, 국내 농업 역시 사회문제의 대안으로 국민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농업과 농촌에 창조를 담은 6차 산업화 추진과정에서 치유농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3).

우리나라 치유농업은 초기 도입단계로서 개념과 영역, 범위를 설정하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홍지영, 이병오, 2016). 치유농업 또는 치유농장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농촌체험의 정서함양이나 휴양기능, 체험학습의 정서적 효과 등이 연구되고 있으며, 개별 농장을 중심으로 농업 및 원예치료 사례 등이 간헐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수준이다. 또한, 현재까지는 국내 상황에 맞게 치유농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나 방법, 체계 등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즉, 치유농장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장 운영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체계화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치유농장의 사업 동기는 교육중심형, 치유중심형 및 판매수익중심형으로 구분된다. 국내에서는 치유농장의 사업적 기능이 유사한 농촌교육농장 운영되고 있어(김경미 외, 2015), 치유중심 및 판매수익중심의 치유농장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치유농장의 사업동기 유형에 따라 농장 및 프로그램 참여자 집단 특성 및 규모, 치유활동의 형태, 운영 인력, 지역 또는 접근성 등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i Iacovo et al., 2009; Hassink et al., 2012; Hine et al., 2008a; Hine et al., 2008b, Sempik et al., 2010).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치유농장 사업동기에 따른 농장 운영의 주요 특성 차이를 구명하여 치유농장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치유농장의 사업동기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자의 차이를 구명한다. 둘째, 국내 치유농장의 사업동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의 차이를 구명한다. 셋째, 국내 치유농장의 사업동기에 따른 수입원 및 접근성의 특성 차이를 구명한다. 넷째, 국내 치유농장의 사업동기에 따른 관련 변인들의 설명력을 구명한다.

2. 관련 선행연구

치유농업은 다기능적 농업(multifunctional agriculture)과 지역

사회 기반 건강치유(community-based health care)의 두 가지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Di Iacovo et al., 2009; Kinsella, O'Connor, Smyth, Nelson, Henry, Walsh, & Doherty, 2014; Hassink, Hulsink, & Grin, 2012). 이는 치유농업이 농장 및 농촌경관 활용 등 농업 활동을 포함해야 하며, 그 결과로서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치유농업은 농업활동을 포함하는 치유적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여 개념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Hassink (2007)과 Hine et al. (2008a)은 치유농업을 치유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의 활용으로 보고 있으며, Di Iacova et al. (2009)은 농촌지역의 사회적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농업 자원을 활용하는 모든 활동으로 개념화 하였다. 국내에서는 김경미 외(2013a; 2013b)의 연구에서 치유농업의 개념이 정립되어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받았는데, 이 연구에서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심리적·사회적·인지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으로 정의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치유농업은 농업 및 농촌자원 또는 이와 관련된 각종 활동이 포함되어야 하며, 육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의 증진을 위한 치유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치유농장이란 이러한 치유농업 서비스가 제공되는 농장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소규모 농장의 경영주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동기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고 가족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박덕병, & 김경희, 2012), 치유농장의 사업동기를 이해하는 것은 경영전략이나 정책지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사업 동기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rater, 1983; Ollenburg & Buckley, 2007; Weaver & Fennell, 1997). 여기서 경제적 동기란 농장의 수익을 증대하거나 부가적인 소득을 얻고자 하는 동기를 의미하며, 사회적 동기란 농업을 갖는 기능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거나 농업 및 농촌 자원의 공유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동기라고 볼 수 있다(박덕병, 김경희, 2012).

치유농업의 사업동기와 관련된 연구는 치유농업 사업동기를 구명하는 선행연구(Bragg, 2013) 한편을 제외하면 치유농업 사업동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치유농업의 지향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왔다. 우선, 국외의 치유농업의 사업동기를 분석한 연구는 영국의 치유농장주를 대상으로 초기 치유농장을 시작하게 된 사업동기에 대한 응답 빈도를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치유농업의 사업동기는 차별적 전략마련, 서비스 확대, 사회적 약자 및 장애인에 대한 치유기회 제공, 농촌지역과의 교류제공, 농촌자원의 공유 등으로 제시되었다.

둘째, 치유농장의 지향성을 두 가지로 구분한 연구(Hine et al., 2008a; Sempik et al., 2010)는 판매수익중심과 치유 중심으로 유형을 구분한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판매수익중심의 치유농장은 농업생산을 통한 생산 또는 가공물의 판매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데 사업참여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치유중심 치유농장은 생산·판매활동보다는 치유서비스 제공 자체에 초점을 두어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치유 기능에 사업참여 동기를 가지고 있다.

셋째, 치유농업의 지향성을 치유 중심(care oriented), 고용 중심(employment oriented), 교육(education oriented) 중심으로 구분한다(Di Lacovo et al., 2009). 고용 중심의 치유농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재활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교육 중심의 치유농업이란 정규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농업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치유농업이 제공하는 치유적 서비스는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회복 뿐 아니라 사회적 건강 증진과도 연관되는 개념으로 설정되었음을 논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고용 중심의 치유농업은 사회적 재활의 일환으로 치유 중심 치유농업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Di Lacovo et al. (2009)은 치유농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회적 동기를 치유 및 교육 중심으로 다시 구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치유농업 또는 농장주의 사업동기는 크게 사회적 동기인 치유중심 및 교육중심 사업동기와 경제적 동기인 판매수익중심 사업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치유농장 사업동기에 따라 치유농장의 운영 방식은 다소 다른 특징을 보인다. Hine et al. (2008a; 2008b)에 따르면 치유농장의 특성은 참여자 규모, 참여자 요구, 참여자 역할, 농장주 역할, 주요 수입원, 환경, 조직구조 및 연계기관 등에 따라 차

이를 보인다. 치유농장의 지향성이 치유에 있을 경우, 참여 대상은 정신질환자, 약물/알콜중독자, 비행청소년이며, 이들에게 치료, 처치와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러한 치유농장은 대규모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치료사 등 치유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로 하며, 도시 근교 등 비교적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소재하는 특성을 갖는다. 반면, 판매수익 중심의 농장은 노인, 장애인, 범죄자,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술, 작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농업생산으로부터 수입원을 창출한다. 또한, 이 치유농장은 전원 지역에 소재하면서, 소규모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전문 인력 보다는 농장주 중심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갖는다.

Di Lacovo et al. (2009) 역시 치유농장의 설립 및 운영 동기에 따라 참여 대상이나 수입구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구체적으로 치유 중심의 치유농장은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며, 보건이나 사회복지 기관 또는 전문가와의 연계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교육 중심의 치유농장은 정규학교 학생, 학습장애 등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농업활동이나 농촌경관에 대한 비교적 단 기간의 교육적 경험을 제공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구조임을 언급하였다.

Sempik et al. (2010)은 치유농업이 다양한 수준의 농업활동을 공통적으로는 포함하고 있으나 그 동기 또는 지향성에 따라 프로그램의 종류, 전문성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치유 중심의 농장에서는 치료나 재활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회서비스나 치료기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반면, 교육 중심의 농장에서는 대안교육과 같은 특수한 교육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교나 대안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Hassink et al. (2012)의 연구에서는 치유농업의 설립동기에 따라 참여자 규모, 수입원, 수요자 지불비용 규모 등에 차이가 있다

(표 1) 치유농장 사업동기별 특성 차이 관련 선행연구

요소	사업동기별 특성 차이			선행연구				
	치유	교육	판매수익	A	B	C	D	E
참여 대상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정신질환자, 약물/알콜 중독자, 비행청소년)	정규학교 학생, 학습장애, 법적문제, 사회적 조치에 따른 사람들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범죄자, 노숙자, 약물/알콜중독자)		•	•		
참여자 규모	대규모	-	소규모	•				•
제공 서비스	비교적 장기간의 치료, 재활 등	비교적 단기간의 농업활동 또는 농촌경관을 포함한 교육서비스	농업기술, 작업훈련		•	•	•	
프로 그램	치료사 중심으로 치유 전문가 필요 인력 사회서비스기관, 치료기관 등과 협력	학교, 대안학교, 기타 교육기관과 협력	농장주 중심	•			•	
수입원	사회적 치유서비스 제공에서 창출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입	농업생산에서 창출	•		•		•
소재지 (접근성)	전원+도시(비교적 높은 접근성)	-	전원 중심	•				

주) A: Hine et al(2008a), B: Hine et al(2008b), C: Di lacovo et al.(2009), D: Sempik et al(2010), E: Hassink et al(2012)

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치유 중심의 농장은 환자에 대한 치료서비스 제공이 주요 설립동기로서 수요자 지불비용이 높은 반면, 판매수익 중심의 농장은 노동력 확보가 주요 설립동기로 작용하고 수요자 지불비용이 낮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치유농업 또는 농장이 설립 및 운영 동기나 목적에 따라 참여자, 프로그램, 운영 특성 등에서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을 종합할 때, 치유농장의 참여자 특성으로는 참여 대상, 참여자 규모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특성으로는 제공 서비스, 프로그램 인력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운영 특성으로는 수입원, 소재지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표 1> 참조).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목적은 치유농장 사업동기에 따른 농장 운영의 특성 차이를 구명하는 데 있었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에 운영되고 있는 치유농장이다. 단, 우리나라 치유농업은 도입단계로서 운영 현황에 대한 통계가 명확히 보고되지 않으며(김아라 외, 2016), 치유농장의 운영 역시 특정 농장 또는 치유 관련 자격 보유자 등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치유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농장의 범위 경계조차 불분명한 실정이다(김경미 외, 2013b). 이로 인해 이 연구에서는 모집단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에 한계가 있어 목표 모집단을 선정하였다.

목표 모집단의 선정과 관련하여 치유농장의 사업적 기능이 가장 유사하면서도, 비교적 명확한 통계자료 확보가 가능한 농장의 형태로 농촌교육농장이 운영되고 있다(김경미 외, 2015). 농촌교육농장 역시 관련 통계가 농장의 수와 같이 개략적인 수준에서 보고되어 있으며, 자료수집 시기인 2015년 이전 즉, 2014년을 기준으로 477개가 선정되었다(농촌진흥청, 2014).

2.2. 조사 도구

치유농장 사업동기는 선행연구(Vic, & McElwee, 2011)에서 이루어진 농업 사업동기에 관한 문항을 중심으로 치유농장 사업동기와 관련된 선행연구(Bragg, 2013) 및 우리나라 치유농장 실정에 맞도록 수정한 측정문항을 사용하였다. 개발한 조사도구는 2015년 9월 11일 도시농업, 농업교육 등을 전공한 박사 5명, 치유 및

농촌교육농장 운영주 2명을 포함한 협의회를 통해 검토하여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농산물 판매를 통한 이윤 추구를 위해서’, ‘도·농교류를 통한 농업의 중요성 확산을 위해서’, ‘교육을 통해 농업·농촌 이해를 위해서’, ‘농촌·전통 음식을 통해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심신의 치유를 위해서’, ‘신체적·사회적 재활을 통한 기능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해서’ 등의 최종 6개의 문항으로 사업동기를 측정하였으며, 사업동기유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측정하였다.

치유농장 사업동기 영향요인에 대한 변인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연령별 프로그램 주요 참여대상, 참여자 최대 규모, 프로그램 운영 시간, 치유 및 의료 관련 전문가의 활용여부, 농장 수익 중 프로그램 운영 수익 비중, 대중교통을 활용한 접근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등으로 구성하였다.

2.3. 자료 수집

자료는 2015년 9월부터 10월까지 총 477개 농촌교육농장의 농장주에게 배포하여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총 182부로(회신율 38.1%)로 Data cleaning 과정에서 중속변인인 치유농장 사업동기에 대해 미응답을 한 사례 51개가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131개(유효 회신율 27.5%)의 사례수가 분석되었다.

2.4. 자료 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농장 운영 특성차이에 따른 농장 사업동기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 χ^2 -검정, 일원분산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우선 농장특성인 농장이 위치한 지역은 수도권과 강원권이 각각 20.6%, 1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는 호남권과 영남권(14.5%), 충청권(13.7%), 제주(3.8%) 순으로 나타났다. 농장 규모의 평균은 약 4,700평 규모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인 성별에 따른 비율은 남자가 54.2%, 여자가 45.8%로 나타났다. 연령은 50대(66.4%)가 가장 높은 비율을

〈표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항목	빈도(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농장 소재지	수도권	27(20.6)	-	-
	강원권	22(16.8)	-	-
	충청권	18(13.7)	-	-
	호남권	19(14.5)	-	-
	영남권	19(14.5)	-	-
	제주	5(3.8)	-	-
	무응답	21(16.0)	-	-
농장규모(평)		-	4700.3	2,857.222
성별	남성	71(54.2)	-	-
	여성	60(45.8)	-	-
연령	30대 이하	15(11.5)	-	-
	40대	14(10.7)	-	-
	50대	87(66.4)	-	-
	60대 이상	15(11.5)	-	-
학력	고졸 이하	18(8.4)	-	-
	전문대 졸업	48(36.6)	-	-
	4년제 대학 졸업	54(41.2)	-	-
	대학원 이상	11(8.4)	-	-
농장운영경력(년)		-	15.2	6.693
상시 근로자 수(명)		-	3.7	1.717

나타내었고, 30대 이하(11.5%), 40대(10.7), 60대 이상(10.0%)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41.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대 졸업(36.6%), 고졸 이하(8.4%), 대학원 이상(8.4%)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은 평균 약 15.2년간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약 4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프로그램 참여자에 따른 사업동기 차이

학생 참여 대상 프로그램 운영여부에 따라 사업동기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 판매수익중심형의 사업동기를 갖은 비율이 57.8%로 교육중심형의 사업동기를 갖은 비율(16.5%)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 치유중심형의 사업동기를 갖은 비율이 77.3%로 교육중심형의 사업동기를 갖은 비율(13.3%)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생 참여 대상 프로그램 운영여부에 따라 사업동기 차이에 대한 χ^2 -검정 결과, χ^2 -통계값이 23.027일 때 유의확률 0.000으로서 유의수준 0.01에서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학생 참여 대상 프로그램 운영 여부에 따른 치유농장주의 사업동기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인 참여 대상 프로그램 운영여부에 따라 사업동기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 치유중심형의 사업동기를 갖은 비율이 45.8%

〈표 3〉 치유농장 프로그램 학생참여에 따른 사업동기 차이

구분	사업동기			계	
	교육중심	치유중심	판매수익중심		
학생대상	유	18 (16.5)	28 (25.7)	63 (57.8)	109 (100.0)
	무	3 (13.6)	17 (77.3)	2 (9.1)	22 (100.0)
합계		21 (16.0)	45 (34.4)	65 (49.6)	131 (100.0)

$\chi^2 = 23.027(df=2)$

〈표 4〉 치유농장 프로그램 성인참여에 따른 사업동기 차이

구분	사업동기			계	
	교육중심	치유중심	판매수익중심		
성인 대상	유	10 (16.9)	27 (45.8)	22 (37.3)	59 (100.0)
	무	11 (15.3)	18 (25.0)	43 (59.7)	72 (100.0)
합계		21 (16.0)	45 (34.4)	65 (49.6)	131 (100.0)

$\chi^2 = 7.415(df=2)$

〈표 5〉 치유농장 프로그램 노인참여에 따른 사업동기 차이

구분	사업동기			계	
	교육중심	치유중심	판매수익중심		
노인 대상	유	0 (0.0)	3 (37.5)	5 (62.5)	8 (100.0)
	무	21 (17.1)	42 (34.1)	60 (48.8)	123 (100.0)
합계		21 (16.0)	45 (34.4)	65 (49.6)	131 (100.0)

주) 기대빈도 5이하인 셀이 20% 이상으로 χ^2 -검정 미실시(3셀, 50%)

로 교육중심형의 사업동기를 갖은 비율(16.9%)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 판매수익중심형의 사업동기를 갖은 비율이 59.7%로 교육중심형의 사업동기를 갖은 비율(15.3%)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인참여 대상 프로그램 운영여부에 따라 사업동기 차이에 대한 χ^2 -검정 결과, χ^2 -통계값이 7.415일 때 유의확률 0.025로서 유의수준 0.05에서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성인 참여 대상 프로그램 운영여부에 따른 치유농장주의 사업동기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 참여 대상 프로그램 운영여부에 따라 사업동기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노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 판매수익중심형의 사업동기를 갖은 비율이 62.5%로 교육중심형의 사업동기를 갖은 비율(0.0%)보다 높게 나타났다. 노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도 판매수익중심형의 사업동기를 갖은 비율이 48.8%로 교육중심형의 사업동기를 갖은 비율(17.1%)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업동기에 따른 노인 참여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가는 전체 131개 중 8개로 노인 참여 대상 프로그램 운영 농가 수가 충분하지 않아 사업동기에 따른 차이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도움필요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여부에 따라 사업동기가

<표 6> 치유농장 프로그램 도움필요 대상 참여에 따른 사업동기 차이

구분		사업동기			계
		교육중심	치유중심	수익중심	
도움필요 대상	유	10 (11.8)	37 (43.5)	38 (44.7)	85 (100.0)
	무	11 (23.9)	8 (17.4)	27 (58.7)	46 (100.0)
합계		21 (16.0)	45 (34.4)	65 (49.6)	131 (100.0)

$\chi^2 = 9.861(df=2)$

<표 7> 치유농장 프로그램 참여대상 규모에 따른 사업동기 차이

구분		빈도 (명)	평균 (명)	표준 편차	F	Scheffé		
						①	②	③
사업 동기	①교육중심	21	156.9	106.589	2,580*	*		
	②치유중심	45	117.3	63.260				
	③판매수익중심	65	115.4	71.219		*		

*p<0.1 **p<0.05 ***p<0.01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도움필요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 판매수익중심형의 사업동기를 갖은 비율이 44.7%로 교육중심형의 사업동기를 갖은 비율(11.8%)보다 높게 나타났다. 도움필요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도 판매수익중심형의 사업동기를 갖은 비율이 58.7%로 교육중심형의 사업동기를 갖은 비율(23.9%)보다 높게 나타났다. 도움필요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여부에 따라 사업동기 차이에 대한 χ^2 -검정 결과, χ^2 -통계값이 9.861일 때 유의확률 0.07로서 유의수준 0.1에서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도움필요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여부에 따른 치유농장주의 사업동기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여대상 규모에 따라 사업동기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사업동기별 참여대상 규모는 교육중심형이 156.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치유중심형이 117.3명, 판매수익중심형이 115.4명 순으로 나타났다. F 검정에 의한 분석 결과, 사업동기에 따른 참여대상 규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580, p<0.01). Scheffé 사후검정 결과, 참여규모는 판매수익중심형과 교육중심형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판매수익중심형이 교육중심형에 비해 참여대상 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적은 편임을 의미한다.

3.3. 사업동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차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에 따라 사업동기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사업동기별 프로그램 운영

<표 8> 치유농장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따른 사업동기 차이

구분		빈도 (명)	평균 (명)	표준 편차	F	Scheffé		
						①	②	③
사업 동기	①교육중심	17	1.9	0.682	2.896*	*		
	②치유중심	39	2.3	0.524				
	③판매수익중심	58	2.2	0.625				

*p<0.1 **p<0.05 ***p<0.01

<표 9> 치유농장 치유 및 의료관련 전문가 활용에 따른 사업동기 차이

구분		사업동기			계
		교육중심	치유중심	판매수익중심	
치유/의료 전문가 활용	유	12 (13.3)	40 (44.4)	38 (42.2)	90 (100.0)
	무	9 (22.0)	5 (12.2)	27 (65.9)	41 (100.0)
합계		21 (16.0)	45 (34.4)	65 (49.6)	131 (100.0)

$\chi^2 = 13.003(df=2)$

시간은 치유중심형이 2.3시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판매수익중심형 2.2시간, 교육중심형 1.9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F 검정에 의한 분석 결과, 사업동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896, p<0.1). Scheffé 사후검정 결과,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치유중심형과 교육중심형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유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 대한 교육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 대해 프로그램 기간이 길게 소요됨을 의미한다.

치유 및 의료 관련 전문가 활용에 따른 사업동기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여기서 치유 및 의료 관련 전문가란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을 의미한다. 치유 및 의료 관련 전문가 활용하는 경우 치유중심형이 44.4%(40명)로 가장 높았고, 치유 및 의료 관련 전문가를 미활용하는 경우에도 판매수익중심형이 65.9%(27명)로 가장 높았다. 치유 및 의료 관련 전문가 활용 여부에 따라 사업동기 차이에 대한 χ^2 -검정 결과, χ^2 -통계값이 13.003일 때 유의확률 0.02로서 유의수준 0.05에서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치유 및 의료 전문가 활용 여부에 따른 치유농장주의 사업동기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4. 수입원 및 접근성에 따른 사업동기 차이

프로그램 운영 수익 비중에 따라 사업동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사업동기별 프로그램 운영 수익 비중은 치유중심형이 36.0%p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육중심형 36.0%p, 판매수익중심형 29.3%p의 순으로 나타났다. F 검정에 의한 분석 결과, 사업동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수익 비

〈표 10〉 치유농장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따른 사업동기 차이

구분	빈도 (명)	평균 (명)	표준 편차	F	Scheffé		
					①	②	③
사업 동기	①교육중심	21	36.0	8,891	5.628***		*
	②치유중심	45	36.0	10,798		**	
	③판매수익중심	65	29.3	12,433		* **	

*p<0,1 **p<0,05 ***p<0,01

〈표 11〉 치유농장 접근성에 따른 사업동기 차이

구분	사업동기			계	
	교육중심	치유중심	판매수익중심		
대중교통 이용가능	유	10 (14,3)	22 (31,4)	38 (54,3)	70 (100,0)
	무	11 (18,0)	23 (37,7)	27 (44,3)	61 (100,0)
합계	21 (16,0)	45 (34,4)	65 (49,6)	131 (100,0)	

$\chi^2 = 1,319(df=2)$

중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5.628, p<0.01). Scheffé 사후검정 결과, 프로그램 운영 수익 비중은 판매 수익중심형과 치유중심형, 판매수익중심형과 교육중심형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판매수익 중심형이 치유중심형과 교육중심형에 비해 프로그램을 통한 운영 수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농산물 또는 가공품 판매와 같은 다른 형태의 수익 창출 규모가 프로그램에 비해 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중교통을 활용한 접근성에 따라 사업동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대중교통이 이용가능한 경우 판매수익중심이 54.3%(38명)로 가장 높았고, 대중교통이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도 판매수익중심이 44.3%(27명)으로 가장 높았다. 대중교통 이용가능 여부에 따라 사업동기 차이에 대한 χ^2 -검정 결과, χ^2 -통계값이 1.319일 때 유의확률 0.517로서 유의수준 0.1에서 영가설이 기각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가능 여부에 따른 치유농장주의 사업동기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5. 치유농장 사업동기 유형 결정요인

치유농장 사업동기 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분류된 세 가지 유형의 사업동기 유형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χ^2 -검정 및 일원변량분석을 통하여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인정된 독립변인만을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최우함수법(maximum

〈표 12〉 치유농장 사업동기에 대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우도비검정		치유중심형		판매수익중심형	
	-2LLa	χ^2	B	Wald χ^2	B	Wald χ^2
상수	180.21	.000	-2.37	.429	-2.77	.681
성별	181.65	1.437	-0.03	.002	0.57	.800
연령	182.15	1.934	0.46	1.161	0.03	.005
학력	180.98	.767	-0.26	.374	-0.32	.747
농장경력	181.16	.950	0.14	.257	0.23	.892
농장규모	180.78	.573	-0.13	.058	-0.33	.494
직원수	183.71	3.502	-0.11	.023	0.91	1.868
학생 대상	194.30	14.086***	-1.88	3.555*	1.42	1.441
성인 대상	184.98	4.768*	-1.81	3.862**	-1.54	3.581*
도움필요 대상	188.99	8.781**	2.33	7.061***	0.95	1.486
참여대상 규모	183.72	3.508	-0.01	2.808*	0.00	.197
PG 운영 시간	188.17	7.954**	1.22	4.361**	1.45	6.820***
전문가 활용	187.28	7.065**	1.90	5.476**	0.48	.571
PG 운영 수익비중	195.37	15.162***	0.03	.887	-0.06	4.114**

우도비 검정(likelihood ration test)
 $\chi^2 = 71.071$ *** (초기모형(상수만 존재) -2LL 251,282. 추정모형 -2LL = 180,211, df=26)
 적합성 검정(Goodness-of-Fit) : Pearson $\chi^2 = 247.771$ (p=0.38), Deviance $\chi^2 = 180,211$ (p=0.933), Conx and snell = 0.436, Nagelkerke = 0.502
 분류정확도: 68.5%(교육중심형 28.6%, 치유중심형 70.7%, 판매수익중심형 80.6%)

*p<0,1 **p<0,05 ***p<0,01

likelihood function)을 이용하여 설정된 다중로지스틱 모형을 추정하였으며, 기존 농촌교육농장과 연계된 ‘교육중심형’에 비해 타 사업동기 유형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중로지스틱 모형의 참조항으로는 ‘교육중심형’을 선택하였다.

모형에 포함된 모든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0인지에 대한 가설검정결과, 절편만을 포함하고 있는 모형의 -2LL과 연구자가 설정한 이론 모형의 -2LL의 차이를 나타내는 χ^2 값은 71.071, 이에 따른 유의확률은 .000으로서 연구자가 설정한 변인을 통하여 치유농장 사업동기 유형을 예측하는 모형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치유농업 사업동기 유형의 관찰치와 예측치 간의 차이를 보면 치유중심형은 전체의 70.7%. 판매수익형의 경우 전체의 80.6%가 정확히 분류되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전체적인 예측 정확도는 68.5%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기준에 비해 25% 이상의 분류정확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 모형의 판별력이 있다고 본다(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

치유중심형의 경우 학생대상 프로그램 운영 여부(Wald=3.555,

$p=.059$), 성인대상 프로그램 운영 여부(Wald=3.862, $p=.049$), 도움필요대상 프로그램 운영 여부(Wald=7.061, $p=.008$), 프로그램 참여 대상 규모(Wald=2.808, $p=.094$), 프로그램 운영 시간(Wald=4.361, $p=.037$), 치유 및 의료 관련 전문가 활용 여부(Wald=5.476, $p=.019$)가 유의미한 정의 값을 가지고 있어 학생 및 성인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프로그램 참여 대상 규모가 크고 운영시간이 길며 치유 및 의료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 교육중심형보다 치유중심형 사업동기일 경우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판매수익중심형의 경우 성인대상 프로그램 운영 여부(Wald=3.581, $p=.058$), 프로그램 운영 시간(Wald=6.820, $p=.009$), 프로그램 운영 수익비중(Wald=4.114, $p=.043$)이 유의미한 정의 값을 가지고 있어 성인 대상이 아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프로그램 운영시간이 길고 프로그램 운영 수익비중이 낮은 경우 치유중심형보다 판매수익중심의 사업동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4. 결론 및 제언

국내 농업은 6차 산업화와 더불어 치유농업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농업을 도입하는 치유농장의 운영 방식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치유농장의 사업동기별 특성 차이를 분석하여 사업동기에 적합한 치유농장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유농장의 사업동기 구분 결과, 관련 선행연구 등을 종합하여 사회적 동기인 교육중심의 치유농장 및 치유중심의 치유농장과 경제적 동기인 판매수익중심의 치유농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국내 농촌교육농장 연계형 치유농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위와 같은 동기 구분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자, 운영 특성 등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학생, 성인 및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의 참여 여부에 따라 사업동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국내 치유중심형 농장은 다른 동기유형의 농장에 비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82.2%). 이는 사업동기에 따라 프로그램 목표대상이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치유중심 농장과 교육중심의 농장이 각각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를, 정규학교 학생이나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는 Hine et al. (2008b) 과 Di Iacovo et al.(200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치유중심형 농장으로의 전환 및 운영 시 주요 고객층의 설정이 다른 동기의 농장과는 차별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사업동기에 따른 참여대상 규모는 판매수익중심형 농장에서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치유 중심의 농장이 판매수익 중심의 농장에 비해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다는 Hine et al.(2008a)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국외의 치유농장과 국내의 치유농장의 운영 구조가 유사함을 시사한다. Hine et al은 영국의 치유농장 사례 분석을 통해 치유 중심의 농장을 주로 보건의료기관이 해당 기관의 고객에 대해 농업 활동을 포함한 치유 서비스를 농장을 통해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다.

셋째, 프로그램 운영 시간 및 전문가 활용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국내 치유중심형 치유농장은 다른 사업동기의 농장에 비해 다소 긴 기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중심형 농장의 프로그램 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문인력과 관련하여 복지원예사를 포함한 치유 및 의료 관련 전문가의 활용 비율은 치유중심형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치유중심의 치유농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기간이 교육중심의 치유 농장보다 비교적 장기간으로 구성된다. 이는 Hine et al. (2008a)의 연구결과를, 치유중심의 농장은 치료사와 같은 치유 전문가의 활용 또는 관련 기관과의 협조가 요구된다고 언급한 선행연구 결과(Hine et al., 2008a; Sempik et al., 2010)를 지지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치유중심형 치유농장에서는 중장기의, 교육중심형 치유농장에서는 비교적 단기간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목적 달성이 가능하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있어 전문인력의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수입원과 접근성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치유중심형과 교육중심형 프로그램 운영 수익이 판매수익중심형 농장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유중심, 교육중심, 판매수익중심형 농장의 주요 수입원이 각각 사회적 치유서비스, 교육서비스, 농업생산판매에서 창출된다는 선행연구(Di Iacovo et al., 2009; Hine et al., 2008a; Hassink et al., 2012)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치유 및 교육중심 치유농장의 수익은 프로그램의 운영 수준과 연관될 수 있는 반면, 판매수익중심형의 경우, 프로그램 보다는 농업 생산이나 가공물 판매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이 요구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치유농장의 사업동기별 접근성에 대해서는 동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치유중심형 농장이 판매수익중심형 농장에 비해 접근성이 비교적 높다는 Hine et al. (2008a)의 연구결과와 상이한 것으로, 이는 국내 치유농장의 도입 특성과 연계하여 해석할 수 있다. Hine et al는 보건의료기관이 중심이 되는 치유중심형 농장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보건의료기관의 치유서비스 제공 농장의 접근성은 전원이 지역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기관에서 접근하기 용이한 도시지역 농장이 함께 분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내 치유중심형 치유농장은 농장이 중심이 되는 구조로 상대적으로 지리적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분석결과에 대한 응답자는 농촌교육농장으로서 그간의 교육적 기능 수행을 위해 다른 농장에 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접근성을 갖췄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치유농장 사업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학생, 성인 및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의 참여 여부,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 치유 및 의료 관련 전문가의 활용과 프로그램 운영 수익 비중 등이었다. 치유중심의 사업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생, 성인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참여하고,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길며, 전문가 활용이 높은 농장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판매수익중심의 사업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이 길고, 프로그램보다는 생산판매 등의 수익비중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치유중심의 치유농장에서 도움이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치료사 등의 치유 전문가를 활용하여, 치유나 재활이 포함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수요자의 지불 비용이 높다는 선행연구(Hine et al, 2008a; Sempik et al, 2010; Hassink et al, 2012)와 일치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유농장의 사업동기는 교육중심형 치유농장, 치유중심형 치유농장, 판매수익중심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동기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자 집단의 특성이나 참여자 규모, 프로그램 기간, 프로그램 인력 전문성, 농장 수입 구조 등이 상이할 수 있음을 농장 운영 및 지원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치유중심형 치유농장의 경우, 장애인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유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동기유형의 농장은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거주가 필요한 형태 등의 장기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의료나 보건 분야의 인력과 관련 기관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셋째, 교육중심형 치유농장의 경우, 도움이 필요로 하는 대상에 대한 서비스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비교적 단기간의 프로그램의 적용이 가능하다. 교육중심형 치유농장의 주된 수입원은 프로그램으로서 프로그램 중심의 운영 전략이 요구된다.

넷째, 판매수익중심형 치유농장은 프로그램 운영 외의 수익, 예를 들어 해당 농장의 농업생산물이나 가공품의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이러한 수익 구조로 인해 판매수익중심형 치유농장은 프로그램 자체보다는 참여자 규모나 운영 주기 등 농장 운영 상에서 다른 농장에 비해 경영학적 접근이 요구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에 따라 연구결과의 활용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치유농장의 사업동기를 구분하고 각 동기유형에 따른 농장운영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치유농장 운영 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동기유형별로 특히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를 구상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일부 제공한다. 따라서 향후 6차 산업화 내지는 치유농업 도입에 있어 정책적 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운용 시 이 연구에서 제시된 치유농장의 사업동기와 동기별 농장 특성 차이를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의 본질적인 목적은 도입단계의 치유농장 운영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연구 결과에 제시된 치유농장의 사업동기를 고려하고 특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운영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치유농장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국내 교육농장 및 치유농장 등 관련 농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의 모집단을 파악하는 데 다소 제한이 있었다. 이를 고려할 때, 향후 후속연구 및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치유농장의 목록과 이들에 대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김아라, 조은정, 최수명, & 김상청. (2016). 국내 그린케어 운영실태 조사 분석. *농촌계획*, 22(1), 69-79.
2. 김경미, 문지혜, 정순진, & 이상미. (2013a). *치유농업 정착을 위한 전략 개발*. 전주: 농촌진흥청
3. 김경미, 문지혜, 정순진, & 이상미. (2013b). 한국 치유농업의 현황 및 특성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20(4), 909-936.
4. 김경미, 정순진, 이상민, 박동금, 최장진, 정선희 et al. (2015). 정부 3.0 브랜드과제 신규서비스 관련 국민과 함께 하는 치유농업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 Paper presented

- at the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표논문집(Pp. 363-390). 서울: 한국행정학회.
5. 김석우. (2007). *기초통계학*. 서울: 학지사.
 6. 농림축산식품부. (2013). *농업·농촌에 창조를 담은 6차 산업화 본격 추진*. 보도자료. (7월 26일)
 7. 농촌진흥청. (2014). *농촌교육농장 활성화 방안 연구*. 전주: 농촌진흥청.
 8. 박덕병, & 김경희. (2012). 농촌관광사업 경영주의 사업시작동기 영향요인. *관광학연구*, 36(1), 263-286.
 9. 윤유식, 양정임, & 장양례. (2013). 6차산업 농어촌관광마을 선택속성 세분시장에 따른 체험프로그램 선호도 및 행동의도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20(3), 755-775.
 10. 장보경, 최윤지, & 황정임. (2013). 농촌체험관광 사업동기 유형화 연구 - 귀농인을 중심으로. Paper presented at the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P. 121). 안동: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11. 한송희, 손진관, 최윤지, & 윤유식. (2015). 농촌관광마을의 체험활동 분류 및 분석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22(1), 31-41.
 12. 홍지영, 이병오. (2016).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23(4), 419-429.
 13. Bragg, R. (2013). *Care farming in the UK – Key Facts and Figures*. summary report for Natural England. Colchester, England: University of Essex.
 14. Di Iacovo, F., & O'connor, D. (2009). *Support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nsive rural areas*. Firenze. Italia: ARSIA.
 15. Driest, P., Jans, A., Roest, A., & Oltmer, K. (2010). *Thuis op de zorgboerderij. Handreiking kleinschalig wonen voor ouderen met dementie*. Bennekom, Netherlands: Taskforce Multifunctionele Landbouw.
 16. Elings, M., Haubenhof, D., Hassink, J., Rietberg, P., & Michon, H. (2011). *Effecten van zorgboerderijen en andere dagbestedingsprojecten voor mensen met een psychiatrische of verslavingszorgachtergrond*. Wageningen: Plant Research International en Trimbos-instituut.
 17. Frater, J. M. (1983). Farm tourism in England: Planning, funding, promotion and some lessons from Europe. *Tourism Management*, 4(3), 167-179.
 18.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6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19. Hassink, J. (2007). *Combining agricultural production and c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 new role of agriculture and farm animals*. Wageningen: Wageningen University.
 21. Hassink, J. (2009). *Zorgboerderijen dragen bij aan empowerment en eigen kracht van deelnemers*. Wageningen: Wageningen University.
 21. Hassink, J. (2010). *Care farms/social farming/green care: a the Netherlands perspective*. Wageningen, Netherlands: Wageningen University.
 22. Hassink, J., & van Dijk, M. (2006). *Farming for health: Green care farming across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ordrecht, Netherlands: Springer.
 23. Hassink J., Hulsink, W., & Grin, J. (2012). Care farms in the Netherlands: An underexplored example of multifunctional agriculture-toward an empirically grounded, organization-theory-based typology. *Rural Sociology*, 77(4), 569-600.
 24. Hassink, J., van Dijk, A., & Klein Bramel, D. (2011). *Waarden van Landbouw en Zorg*. Wageningen, Netherlands: Plant Research International en Trimbos-instituut.
 25. Hine, R., Peacock, J., & Pretty, J. (2008a). *Care farming in the UK: Evidence and opportunities*. Report for the National Care Farming Initiative(NCFI). Essex, England: University of Essex.
 26. Hine, R., Peacock, J., & Pretty, J. (2008b). Care farming in the UK: Contexts, benefits and links with therapeutic communities. *Therapeutic Communities*, 29(3), 245-260.
 27. Kinsella, J., O'Connor, D., Smyth, B., Nelson, R., Henry, P., Walsh, A., & Doherty, H. (2014). *Social farming handbook: Guidelines for considering, planning, delivering and using social farming services in Ireland and Northern Ireland*. Dublin, Ireland: School of Agriculture and Food Science, University College.
 28. Ollenburger, C., & Buckley, R. (2007). Stated economic and social motivations of farm tourism operators. *Journal of Travel Research*, 45(4), 444-452.
 29. Sempik, J., Hine, R., & Wilcox, D. (2010). *Green care: A conceptual framework. A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health benefits of green care*. Loughborough, England: Loughborough University.
 30. Vik, J., & McElwee, G. (2011). Diversification and the entrepreneurial motivations of farmers in Norway.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9(3), 390-410.
 31. Weaver, D. B., & Fennell, D. A. (1997). The vacation farm sector in Saskatchewan: A profile of the operations. *Tourism Management*, 18(6), 357-365.

Received 14 June 2017; Revised 07 September; Accepted 13 September 2017



Ki-Yong Kim is a CEO of KMplus Consulting,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on agricultural education.
Address: KMPLUS Consulting, 24-14, Gangnam-daero 18-gil, Seocho-gu, Seoul, 06779, Republic of Korea
e-mail) kmlusky@gmail.com
phone) 82-070-7727-9445



Dr. Gyung Mee Gim is a Senior Researcher of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RDA,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on education, extension service, gender studies of agriculture, program development & evaluation of urban agriculture.
Address: (55365)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RDA,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South Korea
e-mail) gimgm@rda.go.kr
phone) 82-063-238-6920



Dr. Sangmi Lee is a Researcher of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RDA,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on horticultural therapy.
Address: (55365)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RDA,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South Korea
e-mail) sangmilee@korea.kr
phone) 82-063-238-6921